



오늘의 신앙레시피

성체성사

가장 큰 은총의 성사



우리 천주교 신자에게는 커다란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1코린 11,24)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라고 말씀하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체성사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 전통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안에서 지속되어 온 이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미의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까? 성체는 진짜 예수님의 몸인가, 아니면 그저 상징일뿐인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을 ‘성변

화(聖變化)’, ‘실체변화(實體變化, transsubstantiation)’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 속성과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사제의 축성을 통해(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빵의 전(全) 실체(實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전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바오로 6세, 「신앙의 신비」 11항 참조). 하지만 성찬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빵과 포도주뿐입니다. 따라서 그 빵과 포도주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사실은 오로지 충실한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체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리러 봐올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성체 찬미가』)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천주교서울대교구

라인
온 성경채널



[성경 속 풍속] 성경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며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성경은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이들 언어는 모두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통속적인 언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시대와 장소, 인종,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 online.catholic.or.kr